

금호산업 손에 넣으면 아시아나항공 주인

■대기업 신세계 등 참여 인수 경쟁 왜 뜨겁나

우선매수청구권 가진 박삼구 회장이 가장 유리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그 자체입니다. 절대 다른 기업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실상 지배적인 금호산업의 인수희망서(LOI) 제출이 마감되면서 인수전 분위기가 뜨겁다. 당장 대기업인 신세계와 다수의 사모펀드, 호반건설 등 6곳이 인수 후보로 이름을 올린데다, 향후 구성될 컨소시엄까지 감안하면 인수 의지를 불태우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 인수 분위기가 달아 오르는 데는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라는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20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지만 진짜 가치는 그 뒤에 얹힌 자본관

계에 숨어 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30.08%를 가진 최대주주로, 금호산업에 손에 넣으면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마저 거머쥘 수 있다. 국적항공사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의 지분 46.00%를 갖고 있고, 금호터미널(지분율 100%)과 금호사옥(79.90%), 아시아나개발(100%), 아시아나 IDT(100%) 등도 보유하고 있다. 표면상으로 금호산업이라는 한 기업이지만 인수에 성공하면 사실상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뼈대를 갖게 된다. 특히 현재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의향서를 제출한 신세계는 현재 운영 중인 웨스틴조선호텔, 면세점, 백화점 등과 금호산업 인수시 부수적으로

인수되는 아시아나항공과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룹 재건이 가장 강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금호산업 인수는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다. 금호산업 인수에 성공해야 주력 기업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모태 기업인 금호고속과 채권단 소유의 금호타이어까지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일할 최고가격에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은 박 회장이 2010년 금호그룹 워크아웃 이후 사재 3300억원을 털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대가로 보장받은 권리다.

박 회장은 자신만만하다. 그동안 “모든 게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 재계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

이 보장된 M&A에서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인수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용건설의 경우 매각에 잇따라 실패했지만 우리사주조합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뒤에야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향토기업이라는 점도 재계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호남기업’이라는 정서가 다른 대기업이 인수전에 참여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시점까지 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CJ,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가운데 신세계만 입찰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철저히 준비를 마치고 금호산업을 되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인수 후보 수에 상관없이 원래 주인이 되겠다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90.47 (+14.35)	▼ 금리 (국고채 3년) 2.04% (-0.03)
▼ 코스닥 516.57 (-4.74)	▼ 환율 (USD) 1099.00원 (-10.90)

시중유통 지폐 5만원권이 69%

동전 환수율 금융위기후 최고

한은 ‘우리나라 화폐’ 출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13년만에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지폐가 5만원권인 것 처럼 6종의 동전 가운데에서는 500원짜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5일 한국은행이 펴낸 ‘우리나라의 화폐’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화폐 발행 잔액(기념주화 포함)은 749조448억원으로 2011년(223조360억원)의 3.4배로 늘었다.

이 책은 한은이 우리나라의 화폐 연혁과 발전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1994년 ‘한국의 화폐’ 증보판 발간 이후 20여년만에 출간됐다.

책자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화폐의 수급에 가장 큰 변화는 5만원권에 의해 초래됐다. 5만원권이 나오기 전인 2008년말까지는 1만원권이 전체 화폐 발행잔액의 86~87%가량을 차지했다. 2009년 6월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5만원권은 그해말 바로 화폐 발행잔액의 26.6%를 차지했고 작년말에는 69.4%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1만원권은 작년말 23.9%로 비중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발행 잔액도 2011년말 19조5243억원에서 작년말 17조9463억원으로 줄었다.

경제 상황과 반대로 움직이는 동전 환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동전 환수율은 1980년대 중반 현행 6종의 주화체계가 정착되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빼고는 꾸준히 하락했으나 최근 3년간은 아주 조금씩 상승하면서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장기 저성장으로 상징되는 최근 몇년간의 경기 부진으로 살림살이에 쪼들리다가 저금통이나 책상 서랍속에서 잠자는 동전까지 눈길을 돌려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은 ‘청춘대박 체크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캐시백 형태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청춘대박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청춘대박 체크카드’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쇼핑, 영화, 커피, 외식, 편의점, 서점, 토익 응시료, 통신의 8개 업종에서 사용금액의 5~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카드다.

광주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청춘대박 체크카드’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청춘상 1명에게는 최신형 노트북을, 대박상 10명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행운상 10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전, 어린이 초청 인사옥 견학

25일 한국전력 본사 사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초청 행사’에 참여한 광주의 초등학생 200여명이 한전 시설을 둘러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은 24일부터 이틀간 학생들에게 인사옥과 도서관 및 영암풍력단지 견학기회를 제공했다.

<한전 제공>

광주상의 회장 선거 경선으로 가나

추대 방식 놓고 박홍석·김상열 이견 조율 실패

두 후보 완주 의지 강해... 부회장단 ‘추대외엔 검토 안해’

광주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 선거가 경선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홍석 현 광주상의 회장과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간 이견 조율이 좀처럼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상의는 다음달 20일 의원 총회를 열고 제22대 광주상의 회장 선거

를 치를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선거가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파전 양상을 띠고 있는 박 현 회장과 김 회장이 추대 방식을 놓고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두 후보는 향후 파장을 우려, 경선보다는 추대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광주상의 부회장단 역시 수차례 모임을 갖고 ‘회장 선거는 만장일치 추대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완주의지’가 강해 쉽게 양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지역 경제인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KBC광주방송의 전, 현 사주인 만큼 두 후보의 사이는 돈독하다고 알려졌으나 추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최근엔 금이 갔다는 설도 흘러나온다. 두 후보가 상의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수차례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추대방식으로 회장이 결정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부회장단이 여전히 ‘추대를 통한 회장 선출’을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상의 부회장단의 한 인사는 “지난 24일 열린 광주상의 부회장단 모임에서 회원들은 추대 외에 다른 방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며 “다른 지역의 상의 회장 선거도 모두 추대로 통일되는 상황인 만큼 결국 두 후보가 힘을 합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SK텔레콤, 신안 암태도 찾아 스마트폰 교육

SK텔레콤이 지난 25일 신안군 암태도에서 지역 주민 300여명에게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행사를 열고,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다.

SK텔레콤 서부 마케팅 본부가 시행한 이번 행사는 통



신 대리점이 없는 신안군청의 협조로 이뤄졌다. 행사에서 SK텔레콤은 지역 주민에게 스마트폰 체험 및 교육과 상담, 무료 수리, 스마트폰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미니 콘서트까지 열어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다. 특히 스마트폰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버층’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SK텔레콤은 전했다.

주민 김길섭(78)씨 “스마트폰 교육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말로 설명하는 기능은 활용하면 편리할 것 같

다”며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행사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부터 ‘이동형 대리점(T버스)’과, ‘이동형 미니 카페(T팝카페)’를 활용해 대리점을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임정준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장은 “앞으로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도서산간 어디라도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p>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p> <p>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합숙자 신청가능)</p> <p>모집 인원 ▶ 30명</p>	<p>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p> <p>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p>
--	---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중국 전문 입학상담

www.gochina.co.kr

입학상담문의 233-9582 (중) 구오말리

1636 결과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보훈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도스크리아 '홍 김사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주)광림의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